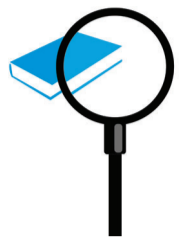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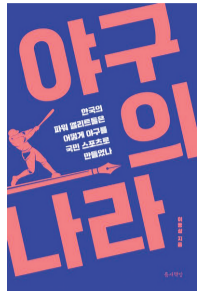


오늘날 야구는 어떻게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됐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는 일제 강점기부터 2000년 대까지 야구가 국민 스포츠가 된 과정을 추적한다. 저자인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이종성 교수는 기자 시절, 야구를 포함한 스포츠가 문화이며 한 시대를 반영하는 귀중한 타임캡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스포츠 문화사를 공부했다.

공부했다.

사실 야구는 국위 선양을 해야 했던 60~70년대만 해도 올림픽, 아시안 게임 종목이 아니었다. 야구 대표팀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저자는 프로 야구가 프로 축구보다 인기가 높은 이유를 70년대 고교 야구에서 찾는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야구 대회에서 각축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야구와 지역 팬덤의 결합"으로 이후 프로 야구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온전히 야구의 인기 요인을 설명하기는 미흡해 보인다. 저자는 우연히 70년대 고교별 명문대 입학자 배출과 관련, 상위권 고교가 대부분은 야구부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점차 연구를 하는 동안 "명문고의 야구 열기가 고교 야구의 인기를 이끌었고, 명문고를 졸업한 엘리트들의 야구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컸을 것"이라는 추론과 가설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야구의 인기가 높았던 배경에는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던 엘리트 명문고의 동문들이 있었다. 명문고를 중심으로 한 대



서울에 해태 타이거즈 팬들이 많은 것은 학업이나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온 호남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1996년 10월 24일 해태 타이거즈가 8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던 순간. <광주일보 자료>

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시기에 고교 야구는 명문고가 펼쳐야 할 또 하나의 경쟁 무대였던 셈이다."

물론 야구는 일본이 만든 엘리트 학교에서 행해지던 '귀족' 스포츠였다. 조선인들이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고 진입장벽이 높았다. 한편으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모던 보이, 엘리트로 인정받는 방향 때문이었다.

1923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조선인들로 구성된 휘문고보 야구팀이 고시엔 본선 8강에까지 이르렀을 때 많은 조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휘문

을 응원했던 것.

해방 이후에 야구는 극적인 변화를 맞는다. 미군정 시기 야구는 일본 스포츠가 아닌 미국 스포츠로 각인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명문교들은 다시 야구를 통해 존재감을 알렸다. 광주이고, 전주고, 경기고, 경북고, 휘문고, 배재고, 경남고, 경북고 등 지역 명문고 군산상고, 선린상고 등 상급고 등 명문들이 야구로 경쟁을 했다. 학창 시절 야구에 매료됐던 엘리트들은 이후 모교 야구를 지원했으며, 엘리트들이 장악한 언론계는 야구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그뿐 아니었다. 프로야구가 출범하는 데에도 엘리트들은 절대적이었고 미국 유학을 경험한 야구 명문학교 출신들이 정계, 재계를 장악했다. 또한 고교 야구를 매개로 발산된 지역주의가 프로야구에 이식되면서 야구는 한국 최고 인기 종목을 지위를 확고하게 다진다.

학연에서 시작된 야구는 그렇게 문화이론, 문화자본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오늘날 한국을 '야구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다.

<틈새책방·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잉 홈

문지혁 지음

'이민자 소설'은 타국에서의 삶을 모티브로 풀어낸 작품을 말한다. 유학을 떠났든, 사업 차 외국에 나갔든,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토대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지난 2010년 단편 '체이서'를 발표하며 소설 창작을 시작한 문지혁 작가의 작품이 '이민자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뉴욕에서 유학을 했던 생활이 그의 작품에 투영돼 있다. 혹자는 그의 소설을 '자전적 소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문지혁 작가가 세 번째 소설집 '고잉 홈'을 펴냈다. 모두 9편의 작품은 미국에 터를 잡고 사는 우리나라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문 작가는 "원래 책의 제목으로 염두에 둔 것은 '뜰 안의 별'이었고, 이 한국어 제목의 도드라짐을 위해 나머지 소설에는 일부러 영어 제목을 썼다"며 "꿈꿈이 생각해보니 이 소설들은 이민자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실 모두가 집에 가는, 집에 가고 싶은, 집에 가려고 하는 이야기였다"고 밝혔다.

표제작 '고잉 홈'에서 제목이 지칭하는 '홈'은 뉴욕이다. 주인공 형은 어느 날 AI 실험에 참가한다. 그가 실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사카고에서 뉴욕까지 가는 차편을 제공받고 사례금도 5백 달러 지급된다는 공고 때문이다. 실험은 간단하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질문에 답을 하고 그것이 가공돼 AI가 쓰는 소설에 활용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주인공은 가족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가공된 것이라는 점이다.

소설은 우리가 달고자 하는 '홈'으로 가는 길에서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더불어 '고잉'의 의미까지도 뉘어보게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결국 궁극의 여딘가를 향해 '고잉'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문학과지성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눈물꽃 소년

박노해 글·그림

"멋이란 그 머시기제이. 사람은 말이다, 다 제맛을 타고나는 거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맘에는 보이는 그 머시기 말이다.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별을 보면은 그 머시기가 맘에 안 오냐... 평야, 니도 참하고 귀있는 사람으로 한세상 멋지게 살아부러 라잉." ('장날, 할머니 말씀' 중)

노동운동가이자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노해 시인이 첫 자전수필 '눈물꽃 소년'을 펴냈다. '내 어린 날의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도의 작은 마을 동강에서 자라 '국민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평이"라고 불리던 소년시절의 성장기를 33편의 이야기 속에 담았다.

소년 박노해의 어린 시절은 어두웠고 가난했고 슬픔이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소년의 마음에는 어둠이 없었다. 시인은 자신의 일생을 관통한 근원의 힘인 '눈물꽃 소년'의 기억을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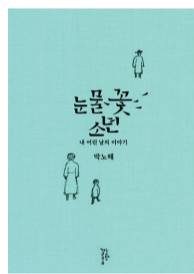
'아버지와 함께한 기자 여행'에서는 배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사려 깊게 도와주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격려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남겨두기를' 편에서는 "아깝고 좋은 것일수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일러주시던 어머니와의 추억을 담았다.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내 안의 소년이 말을 한다. '힘든 거 알아. 나도 많이 울었어. 하지만 너에게 누구도 갖지 못한 미지의 날들이 있고 여정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어. 그 눈물이 꽃이 되고 그 눈빛이 길이 될 거야' 라고."

맛깔진 전라도 사투리가 정감 어린 글맛을 선사하고 33편의 글마다 박노해 시인이 직접 그린 연필 그림이 담겨 있어 파스하기까지 하다.

<느린결음·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영화의 이론-물리적 현실의 구현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 지음, 김태환·이경진 옮김

영화란 가상세계를 영상으로 구현한 가공의 시뮬라크르(simulacre)일 뿐, 그림에도 어느 현실 못지않게 인간의 실재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어떤 작품은 뇌리에 남아 잠들 때까지 잊히지 않고, 또 다른 작품은 삶의 모티브나 동기부여가 된다.

사유의 충위를 넘어서 영화가 '현실' 속 구현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가능할 것 같다. 특히 현실을 초월화한 역사영화의 경우라면, 더 그렇다. 12·12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광주 시민들의 5·18 민중의식을 환기한 바 있다. 이번 달 개봉을 앞둔 영화 '1980'의 경우에도 1980년 광주와 도시민들의 아픔을 연상시킨다. 현실을 뒤트는 명작들을 보고 있으면 '영화'란 물리적 현실의 구현자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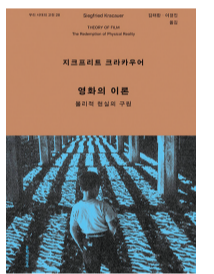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문화비평가·영화이론가, 소설가인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의 '영화의 이론'이 번역 출간됐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에 갖는 가장 큰 잠재력으로 '가시적인 물리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을 꼽았는데, 이 같은 폭로가 물리적 실재의 모순점들을 고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말한다.

"현존하는 모든 매체 중에서 영화만이 자연을 거울로 비춘다. 영화만이 우리가 실제로 보았다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을 사건들을 반사시켜 줄 수 있기에 우리는 영화에 의지한다. 영화의 스크린은 아테나 여신의 반질반질한 방패다."

지혜의 여신의 방패에 맞는 상처를, 영화는 현존하는 비극을 고발하는 지혜의 거울이다. 저자에게 그런 작품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크라카우어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 온 유대계 독일인이라는 이력을 떠올려 보면, 유대계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선들러리스트' 등이 쉽게 떠오른다.

<문학과지성사·4만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